

2015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12.21(월) 11:30~13:30

■ 주요 의견 내용

▲ 보도의 정확성, 심층성 제고해야

- 연합뉴스TV가 시청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빠른 뉴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보도라고 생각함. 정확하지 않은 보도, 추측보도는 제 아무리 빨라도 연합뉴스TV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임. 정확한 보도, 믿을 수 있는 보도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면 시청자로부터 사랑받는 연합뉴스TV가 될 것으로 확신함(최현철 위원)
- 연합뉴스TV가 시청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단편적인 스트레이트성 기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층적인 기획보도라고 생각함. 단편적인 보도는 다른 언론사도 다 다루기 때문에 연합뉴스TV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없으므로 연합뉴스TV만의 장점(예를 들면, 국제뉴스 등)과 독특한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뉴스 예를 들면, 노인사회, 다문화사회, 네트워크 사회 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가 될 거라고 확신함(최현철 위원)
- 8일 '뉴스현장14' 교량 안전점검 제대로 했나 안전처 실태확인 기사에서는 안전처가 전국의 교량 100곳을 골라 안전점검 실태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단순 팩트 기사를 전했는데 타 매체에서는 서해대교와 같은 해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 케이블 내부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본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아 아쉬웠음(성낙용 위원)

▲ 화면구성, 자막 개선 필요

- 재연 화면, 효과음, 자막, 자료화면 사용 시 저널리즘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뉴스 제작 교육에 더 투자하기를 기대함.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는 늘 주의하고 보도를 통해 특정인의 권리 침해가 있지 않은지 늘 주의하기를 바람(양승찬 위원)
-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방송화면과 비교시에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콘텐츠가 실려 있는 화면구성을 좀 더 깔끔하게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이용우 위원)
- 뉴스 채널의 한계로 하루 종일 뉴스를 방송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하더라도 하단 스크롤에 시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예를 들어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을 실시간 뉴스로 내보낸다던지 표기를 시청자의 입장이 아닌 전달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표현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

용진 위원)

▲ 프로그램 편성 및 기획·제작의견

- 지금 같은 들쭉날쭉한 뉴스시간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음. 개국 초기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변화가 필요함. 만약 정시편성이 아직 주저된다면 매시 55분을 정확하게 지키는 노력은 필수임. 운영상 불가능하지 않으니 꼭 개선하기 바람(강대인 위원장)
- 매월 사회개혁이나 시민의식 혁명과 같은 캠페인 월 주제를 정해서 매시 또는 일일 수회이상 뉴스방송전에 운영하는 것이 공공채널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강대인 위원장)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자립 희망을 주거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얘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하모니, 다큐미니 오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글로벌 시대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뢰받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분명한 뉴스브랜드로 각인돼야 함. 특히 연합뉴스TV의 장점인 글로벌 뉴스 채널로서의 도약 가능성과 아울러 지식기반사회의 중요 이슈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과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문명을 접목하는 전문 채널로서의 심층 보도 능력 확대가 필요(이헌규 위원)
- 향후 다양한 시청자 층의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함(이헌규 위원)

▲ 앵커, 출연자 및 기타의견

- 뉴스앵커는 방송사의 상징임. 경쟁사에 비해 캐릭터나 퍼스널리티가 약함. 후발 주자와 재정적 어려움이 이해되지만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므로 내 부인력의 과감한 지원과 외부인사의 스카우트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강대인 위원장)
-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투자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정작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연합뉴스TV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 단기적으로 기자들이 과로를 참을 수 있겠지만 타 언론사와 비교할 때 노동 강도가 높다면 결코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 수 없음. 전문 기자와 신규 기자의 충원과 대표적인 남성 앵커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여성 앵커에 비해 남성 앵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감이 있음(양승찬 위원)
-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특정 이슈에 정치평론가들이 출연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일지라도 보도에 신뢰를 주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출연하면 좋겠음. 전문가 섭외가 어려우면 전문기자들이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 주제에 대해 패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을 펴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훼손 할 우려가

- 있으니 다른 의견을 가진 패널도 함께 출연 하여 다양한 의견도 함께 보도하여 판단은 시청자가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보도가 되었으면 함(김용주 위원)
- 방송 진행을 도와주어야 할 패널들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어 출연을 결정했으면 함. 진행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저급성과 막말에 가까운 진행 등으로 시청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됨. 일부 패널의 경우 채널을 타방송으로 돌리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패널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용진 위원)
 - 시간별 뉴스 프로그램이 제목만 바꾸어 똑 같은 기사를 전달한다는 인상을 탈피해야 함. 새로운 뉴스 기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뉴스 제작 환경 마련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홈페이지 운영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뉴스를 검색하고 다시 볼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해 주기 바람(양승찬 위원)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활용을 물론,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다각적인 분야로 영역의 확대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좀 더 세련되고 효율성 있게 구성한다면 매체평판과 시청률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이용우 위원)
 - 위험사회인 현대 특성 상 지구촌의 재난, 전쟁, 기근 등에 대한 언론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책임을 위해 보도 사실을 적시에 수집,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필요함. 앞으로 연합뉴스TV가 신속한 보도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심층적 보도를 지향하는 언론이 되길 바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검증 및 보도자문이 가능한 인프라가 긴요함(이현규 위원)

▲ 긍정적 평가 및 총평

- 14일 '뉴스현장13' 은행법 개정 '안갯속'...인터넷은행들 '발동동' 기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카카오와 KT가 선정되면서 현행법상 이 두 기업은 지분을 10%이상 소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소개와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늦어질 것이란 내용을 알기 쉽게 조목조목 정리해주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뉴스 종합채널로서의 사명감이 여러 곳에서 보이며 새롭게 그리고 타 방송과 차별되는 뉴스를 위해 매우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전달됨. 뉴스 채널임에도 중간 중간 새로운 포맷의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각도로 다가가려는 노력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함(이용진 위원)
- 타 채널은 대부분 한 가지 사실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또는 일부 편향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식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 비해 비교적 공정하고 균형적인 방송이라는 이미지를 심었음. 자막 처리가 경쟁사에 비해 비교될 정도로 많이 세련되었고, 앞으로 이 부문에 보다 세심한 터치를 한다면 시청자

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방송으로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최근 1년 간 뉴스 보도 중심에서 점차 다큐, 여행, 연예, 기업 경영 등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임(이헌규 위원)

- 지난 2년간 연합뉴스TV가 확연히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람 있었으며. 특히 적은 인원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를 비롯한 타 매체와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상황이라 생각함. 그러한 성과는 다름 아닌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함. 연합뉴스TV 발전에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 드림(이용우 위원)
- 연합뉴스TV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기본으로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며 품위 있고 재미를 놓치지 않는 방송으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로 성장해가시기를 마음깊이 기원함(최진녕 위원)
- 지난 1년간 연합뉴스TV의 눈에 띄는 변화는 뉴스보도 중심의 채널에서 뉴스·정보 채널로서의 변화였음. 올해 신규 제작, 편성된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 다큐, 여행, 연예, 기업경영 등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이 훨씬 다양해졌음. 이는 연합뉴스TV가 지닌 보도 전문 채널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시청자 층을 흡수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생각함. 신년에도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연합뉴스TV의 이름을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각인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음(이헌규 위원). (끝).